광양제철 설비투자 1년 늦춘다

철강경기 회복 늦어… 2조5천억 규모 코크스 공장 등 완공 시점 연기

포스코 광양제철이 올해 시작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완료시점을 9개월에서 1년가량 늦추기로 했다. 세계 경기 회복이 여의치 못해 철강 수요가 예상외로 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지역 경제계의 걱정을 사고 있다.

포스코는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올해 초 착공한 광양제철소의 5소결 및 5코크스 생산설비 완공 시점을 오는 2012년 9월로 연기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정정 공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두 1조9천276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철광석을 굽는 공정인 소결과 쇳물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코크스 관련 설비의 증설하는 공사다.

포스코는 아울러 광양제철소에서 2011년 3월까지 끝내려던 2천988억원 규모의 자동차용 도금강판 생산능력 확대 투자의 완료 시점을 2012년 3월로 1년 늦췄고 포항에서 완공하려던 2천689억원 규모의 열연용융 아연도금강판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완료 시점도 1년씩 미뤘다고 각각 공시했다.

쇳물을 생산하는 상공정 외에 자동차, 전자 등 수요산업을 대상으로 철강제품을 공급하는 하공정 설비의 확충 시기도 함께 조정한 것이다.

세계 4위의 거대 철강사인 포스코가 대규모 설비투자의 완성시점을 미룬 것은 세계경기 회복이 의외로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투자 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시기 조정은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 관계자는 "각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해당사업의 투자결정이 대체로 지난해 이뤄진 것이어서 상황 변화를 감안해 완공 시점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항공 여행사진 관람하세요 12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 화랑에서 열린 '제16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내외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풍물, 진솔한 삶의 현장을 담은 사진 60여점이 선보였다. 공모전은 18일까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롯데 1억 경품 광주서 당첨

롯데백화점이 창립30주년을 기념으로 내건 1억원 상품권이 광주에서 응모한 고객에게 돌아갔다.

롯데백화점은 12일 잠실점에서 경품행사에 대한 추첨을 한 결과 1등 상품으로 내건 롯데 케슬 아파트 48평형(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분양가 5억8천만원 상당)을 받게 된 행운의 주인공으로 안양점에서 응모한 안모 씨가 당첨됐다고 밝혔다. 2등은 본점과 광주점에서 응모한 이들이 당첨돼 각각 롯데백화점 상품권 1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경품행사에는 사상 최대인원인 280만여명이 응모했다.

이날 추첨 행사가 열린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는 1천여명의 사람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더기 세무조사… 건설업계 초긴장

광주·전남 연고 4곳…지역 경제 악영향 우려

국세청이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지역 건설업계가 파장을 우려하며 일손을 잡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특히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건설경기가 최악의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심층 세무조사가 진행돼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국세청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이 나서 광주에 있는 K사와 H사, 서울과 경기도에 본사를 둔 H사 W사 등 4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4개사는 모두 광주와 전남을 연고로 한 기업으로 대표적인 중견 건설업체이다.

특히 광주에 본사를 둔 H사와 K사에는 특수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조사반이 투입돼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청 조사 4국은 태광실업 박연차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로 유명한 곳이다.

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 근절이란 분석이 많지만 사업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 포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천억원 규모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자로 선정된 H사의 경우 지난달 말 조사반이 투입돼 회계장부와 예금통장 등 관련 장부 일체와 사무실 컴퓨터 하드웨어까지 가져가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세청의 심층조사는 2개월 가량 진행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연장되기도 한다.

지역 대표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데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돼 해당 업체와 하청업체는 물론 건설업계 전반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광주지역 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시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호남에 연고를 둔 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양-남양 2차 수주전쟁

영산강 수중보 이어 하구둑서 재격돌

영산강 살리기 사업 수주전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한양과 남양건설이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서 재격돌한다.

두 건설사는 앞서 총 사업비 3천362억원이 책정됐던 영산강 살리기 사업 6공구(서창)에 대한 수주전을 벌였지만 한양의 승리로 끝났고 이번에 다시 같은 공구에서 경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12일'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2·3공구'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마감한 결과, 3개 공구에 11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천52억원의 사업비가 책정, 가장 큰 규모인 2공구의 경우 남양건설, 한양, 범양건영, 한진중공업 등이 대표건설사로 서류를 제출했다.

남양건설의 경우 50%의 지분을 갖고 동부건설(30%), 영진건설(5%), 청호ENC(5%), 성원건설(5%), 새한종합건설(5%) 등과 팀을 이뤘고 한양은 30%의 지분으로 대우건설(30%), 한화건설(10%), 금광기업(10%), 공영토건(5%), 해동건설(5%),동진건설(5%), DK건설(5%) 등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1공구에서는 현대건설(38%)과 두산건설(14%), 금광기업(10%)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GS건설(34%), 삼성중공업(16%), 금호산업(10%), 진양건설(10%)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간 경쟁으로 압축됐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6공구에서 대표사로 참여했던 금호산업은 이번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데 그쳤다.

3공구에서는 대림산업(41%)과 남양건설(15%)이 손을 잡았고 한양(80%)도 해동건설(20%)과 팀을 이뤘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시 남구청 금고 유권해석 받아 재심의

광주시 남구의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 선정이 심사기준 논란으로 연기된 가운데 남구가 12일 행정안전부에 선정 기준 등을 유권해석의뢰 하기로 했다.

남구는 심사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일부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심사기준의 적절성 ▲공고 기준이 사전심의를 거쳐야 했는지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면 재공모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한 뒤, 늦어도 20일까지 구 금고를 선정키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572.73 (-22.09)
▼ 코스닥지수	484.63 (-0.99)
▼ 금리 (국고채 3년)	4.41% (-0.01)
▼ 원·달러 환율	1,157.30원 -0.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